

10월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1.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뤄 놓으신 업적과 목회 철학을 잘 계승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3.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동행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5.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남을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 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6.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밍카, 박밍크, 박밍키, 이태원, 정정자, 최인철, 함석숙, Kevin and Lexine Mack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죽음 이후의 심판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으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통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간 사역을 돌아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느 곳을 보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대조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고, 병들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가정들은 거의 파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속에 희망을 갖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 사역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0년간 기억에 남는 성회가 많지만, 그중 하나가 1991년에 열린 모스크바 성회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집회에서 강력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험악한 인상을 한 경찰국 소속 2명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총칼이 아닌 예수 소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한국교회의 큰 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소천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의 총재목사로서 세계 기독교사에 큰 획을 그은 '한국 오순절 운동의 대표자' 조용기 목사가 14일 오전 7시 13분 86세를 일기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전파와 사랑 나눔 사역에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성장을 이끌었다.

조용기 목사의 장례는 한국교회장으로 14~18일 5일장으로 치러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된 조문소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조문 시간 내내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과 그의 사역을 따르던 교역자, 성도들이 조문소를 찾아 고인의 천국 가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조전을 보내왔고,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계와 교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줄을 이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문소 현황을 생중계해 해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의 소천을 함께 슬퍼했다. 교회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조문소도 마련돼 성도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다.

조용기 목사의 천국환송예배는 조용기 목사의 오랜 친구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요한복음 11장 25-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장환 목사는 "우리는 기독교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한국교회의 큰 별을 잃었다"며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은 오직 천국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했으며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에 천국으로 가셨으니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쉬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아있는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뤄놓은 업적과 그의 목회를 잘 계승해 한국교회의 성장·발전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 힘차게 이어가자"고 격려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한국 오순절 운동의 대표자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목회자였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5월 18일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2020년 7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강단을 지키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영적 도전과 감동을 전했다. 또 구역 조직 및 통성기도, 철야예배 등을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전수함으로 한국과 세계교회 부흥 성장에 큰 족적을 남겼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마지막 주일 설교 (2020년 7월 19일)

예수님과 강도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마태복음 27장 38-44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죽음 이후의 심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삶을 살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을 안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통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39-40)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열두 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건지시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변명하면 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는 죄

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마귀의 역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중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목회자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은 서울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잉태된 것이었다.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꿈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던 조용기 목사는 1966년 5월 19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이 되었고, 같은 해 9월 미국 국무장관 초청으로 미국 순회 선교여행길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성회를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비행거리만 계산해 보아도 지구 120바퀴 이상 돌아 볼만큼의 여정이었다.

조용기 목사가 71개국을 다니며 전한 복음은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됐고, 감명 받은 해외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줄을 지어 방문했다.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 성장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1976년에는 국제교회성장연구원(Church Growth International, CGI)을 창설했고, 2000년 3월에는 선교자문기구인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을 설립하며 마침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특히 물리적 거리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이웃 국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했는데,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을 펼치며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했다.

국내의 여러 곳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노력에 감동하여 수많은 상을 수여했는데 특히 2005년 미국 뉴욕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상’을, 2007년 미연방의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09년에는 캄보디아 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저술가로서도 왕성히 활동해 복음전파에 힘을 보태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4차원의 영적세계』 등 다수의 서적을 집필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 감동과 비전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 “한국교회의 큰 기둥 조용기 목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기 원로목사의 소천 소식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유명민 비서실장을 통해 조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큰 기둥 조용기 목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큰 위안이었다”고 평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목사님이 심어주신 희망과 자신감은 한국 경제를 키운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국제 구호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선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 말미에 “목사님의 소천으로 상실감이 크실 한국교회에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목사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 약력

학력 및 학위

- 1958. 순복음신학교(現 한세대)졸업
- 1989. 미국 오랄로버츠대 명예목회학박사
- 1990. 미국 리전트대 명예목회학박사

경력

- 1958. -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원로목사(2008년)
- 1966. - 197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 1976. -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총재
- 1986. - 2001. 한세대 재단이사장
- 1988. - 2007. 국민일보 이사장, 회장
- 1992. - 2000. 세계하나님의성회 총재
- 1999. - 사단법인 굿피플(NGO)이사장
- 2000. - DCEM 총재

저서 및 작사

- 「오죽복음과 삼중축복」, 「새천년을 위한 영적 리더십」 등 한국어 저서 325권
- 「The Fourth Dimension」 등 영문저서 49권 및 번역서 247권
- 「얼마나 아프셨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등 복음성가 및 합창곡 30여곡 작사

상훈

- 1982. - 대통령 표창(행정자치부) 홀트학교 건립후원 및 장애아동 복지사업
- 1996. - 국민훈장 무궁화장(보건복지부) 심장병 어린이 시술지원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 1999. - 한국교회지도자상(한국기독교신문협회)
- 2005. -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상 (미국 뉴욕시)
- 2007. - ‘자랑스런 한국인’ 인증서수여 (미 연방의회)
- 2009. - 캄보디아 국왕 최고훈장 캄보디아 어린이 심장병 무료시술, 백내장 개안 수술